

종이가격 오르고 또 오르고

# 인쇄업체들 허리휨다



인쇄용지 가격이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올라 인쇄업체들이 비명이다. 인쇄비는 제자리인데 인쇄용지 가격이 지난 1년간 40% 내외가 올라 이대로라면 도산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인쇄용지 가격이 올라도 인상분만큼 인쇄업체들이 고객에게 청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 인쇄용지 뿐만 아니라 잉크와 필름 등 원부자재 가격도 크게 인상되었고 여기에 경기불황까지 겹쳐 인쇄업체들은 한마디로 사면초가다.

### “눈가리고 아웅”식 인상에 분통

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쇄용지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가격인상에 인쇄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7월 말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한솔제지, 이엔페이퍼, 무림제지, 남한제지, 계성제지 등 5대 주요 제지회사들이 종이 가격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당분간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한 후 슬그머니 ‘할인율 축소’라는 이름으로 가격 인상을 재추진한 것.

이날 간담회에서 제지사들은 “제지사들이 타산을 맞추려면 앞으로도 종이 값을 한참 올려야 할 판이다. 그러나 물가관리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격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어 이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용지가 가격이 정상화 되지 못하면 올 3분기 제지사들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펄프가 전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 되는데 지난 2005년 당시 350달러였던 펄프 값이 올해 840달러가 되는 등 펄프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제지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 담합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인쇄용지 시장의 수요보다 공급이 2배 정도 많다. 사실상 과당경쟁, 출혈경쟁이 심한 시장이라 담합을 할 수 없는 시장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제지사들의 이같은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제지사들이 집중적으로 인쇄용지 가격을 올린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펄프가격은 11% 오르는데 그쳤다. <표2> 제지사들의 주장대로 2005년부터 펄프가격이 많이 올라 적자가 누적되었다면 그것은 설비 과잉 등 제지사 스스로의 문제이지 고객인 인쇄업체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들의 경영상 문제점을 약자인 고객에게 전가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펄프가 생산원가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표1\_최근 1년간 종이가격 인상 현황

인상시기	지종	인상 내용
2007. 8	백상류, 아트류	할인율 5% 축소
2007. 9	백상류, 아트류	할인율 5% 축소
2007. 10	백상류, 아트류	할인율 5% 축소
2008. 1	백상류, 아트류	할인율 3% 축소
2008. 3	백상류, 아트류	고시가 10% 인상 고시가 7% 인상
2008. 6	백상류, 아트류	할인율 5% 축소

\* 할인율 23%, 고시가 17% 등 총 40% 인상

| 표2\_최근 1년간 펄프가격 인상 현황(단위 : US달러/톤)

	2007. 5	2007. 11	2008. 5
미국 NBSK	810	850	880
유럽 NBSK	776	840	904

\* 미국 기준 11% 인상

불가피하게 인상요인이 있다면 연간 계약한 인쇄물의 경우 중간에 용지가격 인상분 반영이 어려운 만큼 연말 한차례 정도의 인상에 그쳐야 하며, 할인을 축소를 하지 말고 고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그런 다음 물가정보지에 게재하고 인상에 따른 홍보를 충분히 해 주어야 인쇄업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펄프·유가 하락 안정세

제지업체와 관련된 증권사들의 분석을 보면 시사점이 크다. 지난 9월 초 증권사들의 분석을 요약해 보자.

“국제 펄프 수입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국내 인쇄용지 업체의 실적개선이 기대된다. 8월 펄프 계약가격이 침엽수는 전월대비 톤당 20달러, 활엽수는 전월대비 톤당 30달러 낮아질 전망이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하락세인데 인도네시아 벌목 재개와 중국의 제지 수요 둔화에 따른 것이다. 2006년부터 이어진 활엽수 펄프 설비 증설 추이를 감안하면, 이번 하락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하락 사이클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최소 3~5년간 이같은 펄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인쇄용지 업체들은 실적개선을 노릴 수 있다. 올해 내수가격 인상과 펄프가격 하락으로 한솔제지와 한국제지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2008년 6.5%에서 2009년 8.2%, 2010년 10.9%로 개선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펄프가격이 가파른 하향세이고 이같은 하락세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며 제지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가도 하락 안정세가 대세다.

### 인쇄용지 가격 내려야

이같은 증권사의 분석과 업계 현실을 기초로 할 때 인쇄용지 가격은 인상은 커녕 큰 폭으로 내려야 한다. 특히 주 고객인 인쇄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시급히 인쇄용지 가격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인상요인이 있다면 연간 계약한 인쇄물의 경우 중간에 용지가격 인상분 반영이 어려운 만큼 연말 한차례 정도의 인상에 그쳐야 하며, 할인을 축소를 하지 말고 고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그런 다음 물가정보지에 게재하고 인상에 따른 홍보를 충분히 해 주어야 인쇄업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제지사들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은 어느정도 인정되지만 인쇄사들은 90%가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어 원부자재 가격의 갑작스런 폭등에 대비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주산업의 특성상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

제지업체와 인쇄업체는 상생공존의 관계가 틀림없다. 따라서 대기업들인 제지사들이 하루빨리 영세 인쇄업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

